

2023년 1월 1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퀵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1 월]



복음화 지향 : 교육자들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애를 가르치고 특히 가장 어렵고 힘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 첫날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냅니다. 올해도 한결같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제1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2ㄱ)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4,4-7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히브 1,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6-21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 뒤 그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영성체 후 묵상

새해 첫날 우리도 이런 말로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 오늘의 복음 묵상 - 신우식 토마스 신부 ♣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요즈음 세계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리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평화가 사라진 듯한 두려움과 공포에 싸여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제 1 독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태어나신 주님 성탄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 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총이며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 성자께서 탄생하신 기쁨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와 강생의 신비를 통한 은총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인 목자들의 이야기에서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곰곰이 되새기시는' 분으로 표현되십니다.

성모님의 잉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느님께서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성모님의 돌보심과 전구에 의탁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기도에 나오듯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고, 언제나 축복과 은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확실하며, 어려움과 불안 그리고 고통과 실망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또 어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성모님과 늘 함께하고 성모님께 의지하는 삶은 우리를 하느님의 계획 안에 살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보호와 축복이 함께하는 기쁜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꽃으로 둘러싸인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장 브루헬 작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 19).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세계 평화의 날’

교회는 해마다 1 월 1 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를 뜻하는 ‘천주의 성모’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에페소 공의회(431 년)입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이 축일은 에페소 공의회 1500 주년인 1931 년부터 보편 교회의 축일이 되었고, 1970 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 월 1 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 바오로 6 세 교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1968 년부터 “평화란 생명과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지닌 가장 높고 절대적인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2023 년 제 56 차 세계 평화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 담화문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출발하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제 56 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담화문을 통해 최근 몇 년 간의 사건들(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로 취약하고 불안해진 인류를 향하여 아래의 메시지들을 전하셨습니다.

“어두운 밤 - 혼란과 고통 그리고 죽음”

코로나 19 는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우리의 계획과 습관을 틀어지게 하였으며 사회의 평온을 깨뜨려 혼란과 고통을 만들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우리를 어두운 밤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질서의 균열, 모순과 불평등”

예상하지 못한 도전의 회오리바람과 과학적 관점에서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는 가운데, 많은 개인과 가정에 전반적인 불안을 일으켰고, 장기화된 격리 기간과 자유에 대한 여러 제약이 중대한 장기적 여파와 함께 이러한 불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들추어낸 우리의 사회와 경제 질서의 균열 그리고 전면에 드러내 버린 모순과 불평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낙담과 비통의 감정들은 사회갈등과 좌절과 여러 형태의 폭력을 조장하면서 평화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취약함의 여러 형태를 드러낸 듯합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 그리고 함께”

3 년이 흘른 이제는 우리가 질문하고 배우며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적절한 때이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19 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깨어지기 쉬운 보물은 형제자매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류애임을,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로운 겸손의 회복’, ‘특정 소비주의 주장들의 재고’, ‘타인의 고통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필요에 더욱 잘 응답하게 해 주는 연대 의식의 쇄신’, ‘혼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같은 경험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요청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은 위기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역사의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습적 기준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공동체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두고서 공동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모두 우리 사회와 우리 지구를 치유하는 데에 애쓰고,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참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에 진심으로 헌신하도록 할 때가 왔습니다.

끝으로 교황님께서서는 이러한 성찰들을 나누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교훈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선의를 지닌 모든 이가 평화의 장인으로서 이번 한 해를 잘 일구어 나가도록 날마다 애쓰리라는 믿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https://cbck.or.kr/Notice/20221185?gb=K1200>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㉞

어디서든 '환경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㉞)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㉞

주기적인 차량 점검(공기압 체크) 하기
 → 6.87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㉞)

CPBC 뉴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 선종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현지시간(31 일) 오전 9시 34분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
 바티칸 '교회의 어머니 수도원'에서
 향년 95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교황님 일대기(한국어) [링크](#)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19강]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민수기 1부 | 1장-10,10

CPBC 뉴스

시노드 여정 속 청년들
 "진정한 소통 고민해야"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12월 18일	성인 38 아이 10	12월 25일	성인 64 아이 18
---------	-------------	---------	-------------

□ 우리들의 정성 (12월 24일(토)~12월 30일(금))

구민식	김요한	김태룡	남궁영근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명진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조성민	주정자			

교무금 \$615 (13 가정), 봉헌금(성탄 자선 헌금) \$620
 우크라이나 성금 \$150(총 모금액 \$500 + 공동체 사회복지예산 \$500 = 총 \$1,000 지원)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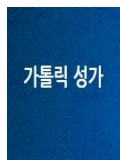
□ 봉사자 안내

- 독서: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1월 8일, 주님 공헌 대축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5일) 마태오반 → (1월 1일) 요한반 → (8일) 루카반 → (15일) 마르코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매월 첫째주 식사): (1월 1일) 식사(요한반) → (8일과 15일) 다과(사목회)
-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사 성가 안내

(1월 1일 천주의 성모 대축일 미사)

입당 237번, 예물 221번,
 영성체 165번, 파견 236번



♡ 가정 성화를 위한 기도

https://m.mariasarang.net/book/bbs_view.asp?index=bbs_gido1&page=1&no=155&curRef=155&curStep=0&curLevel=0&col=2&sort=3

